경남신문 창간 60주년 축하 메시지

경남신문 창간 예순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경남신문은 알찬 정보와 공정한 보도, 대안 있는 비평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독자위원회 운영과 다양한 문화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언론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첨단산업이 잘 어우러진 남해안 벨트는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경남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와 첨단 기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항만·물류, 관광·레저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도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높은 혁신의지와 우수한 인적자원은 이 지역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습니다.

경남신문이 이러한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 데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경남의 발전을 힘껏 돕겠습니다.

창간 6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경남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